

2016. 10. 25 | 제 580 호 |

폐광지역의 거버넌스와 발전방향
-강원랜드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교를 중심으로-

• 이원학(연구위원)

2016. 10. 25 | 제 580 호 |

폐광지역의 거버넌스와 발전방향 -강원랜드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교를 중심으로-

• 이원학(연구위원)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어려워진 강원도 폐광지역에 1995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坑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0년 한시특별법은 2차례 연장되어 2025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2조 5,500억 원의 공적자금 투자와 국내 유일의 내국인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침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처해 있다.

폐광지역 경제진흥의 핵심은 강원랜드이다. 강원랜드는 “정부와 강원도가 주도하는 범 국가적 핵심 사업”으로 2000년 설립되어 15년이 지났다. 2015년 기준으로 매출액 1조 6,337억 원, 순이익 4,416억 원, 고용인원 3,500명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렇지만 국세(2,774억 원) vs 지방세(222억 원) 납부실적에서 보듯이 상당 부분이 국가에 귀속되고 있고, 이익잉여금이 2조 9,648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설립목적에서 제시한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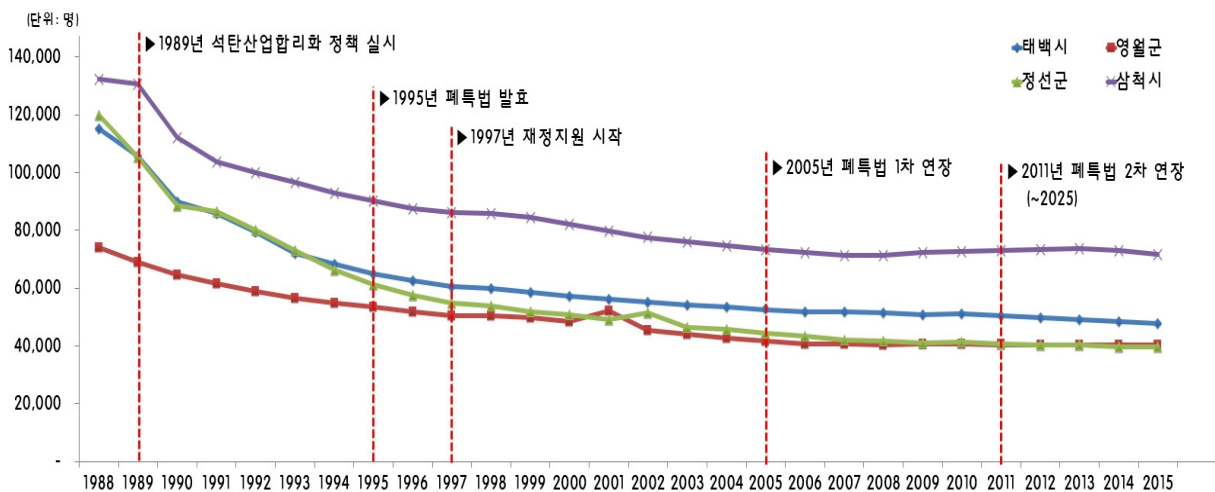
작금의 현실에서 폐광지역과 강원랜드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고민 속에 설립 목적과 여건은 다르지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사례를 살펴보았다. JDC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강원랜드와 마찬가지로 논리로 제주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JDC는 내국인 면세점 운영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금(2015년 1,097억 원)을 바탕으로 관광, 교육, 첨단산업, 의료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약 275명의 직원, 예산 8,050억 원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강원랜드와 JDC는 기관의 운영 방식이나 국가 차원의 지원에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동일하게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JDC 사례분석을 통해 강원랜드에 시사하는 핵심은, 정부의 지원과 중장기 법정 계획 하에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JDC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실의 주도로 “10개년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폐광지역은 체계적인 지원체계 없이 3년마다 교체되는 강원랜드 경영진 주도로 운영된다. 앞으로 폐특법이 10년 남았다. 강원도, 폐광지역, 강원랜드 모두 2025년 이후 지역과 강원랜드의 생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시기이다. 제주도의 사례가 정답일 수는 없지만, 주변의 다양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버넌스와 운영 방법을 조속히 찾아 만들어 보자.

I. 폐광지역, 강원랜드의 과거와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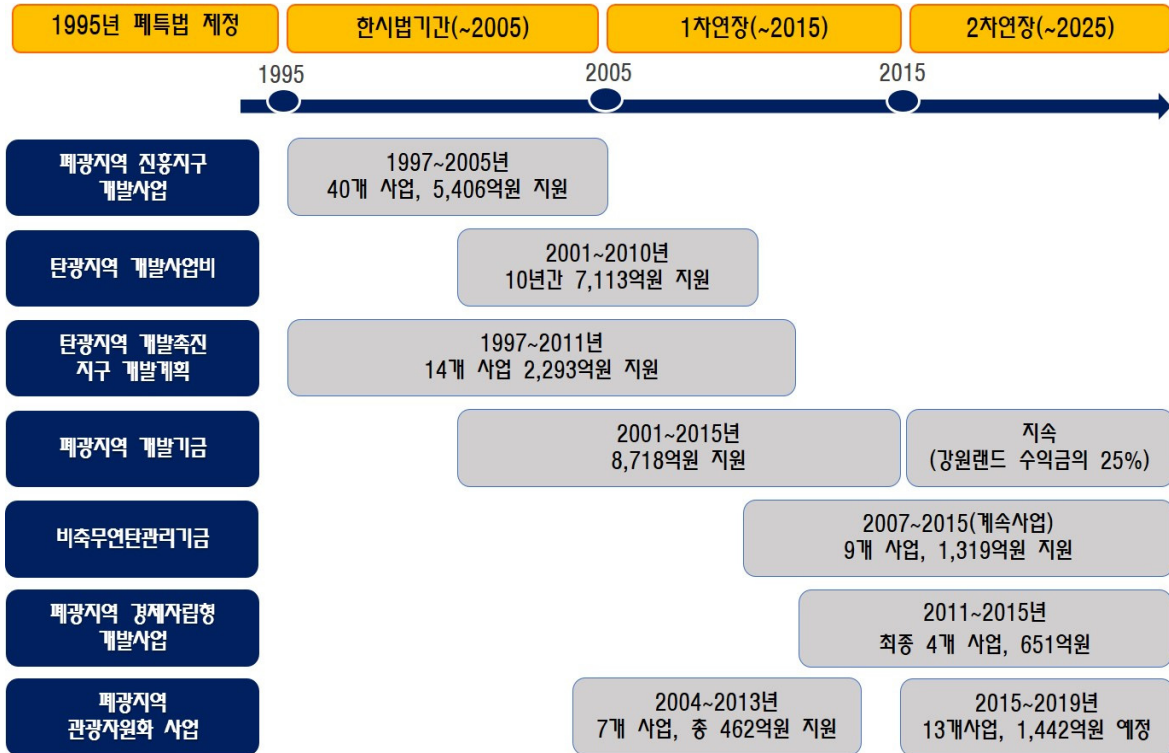
■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폐광지역의 변화

- 탄광지역 4개 시군(삼척, 태백, 영월, 정선)의 인구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추진 이전 '89년 41만 명에서 '15년 20만 명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2015년 199,276명)
 - 정부의 급격한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추진과 지역의 대체산업 확보 미비로 인한 종합적인 결과로 판단됨
 - 강원랜드 설립 등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다른 인구 유입책 등이 부재하여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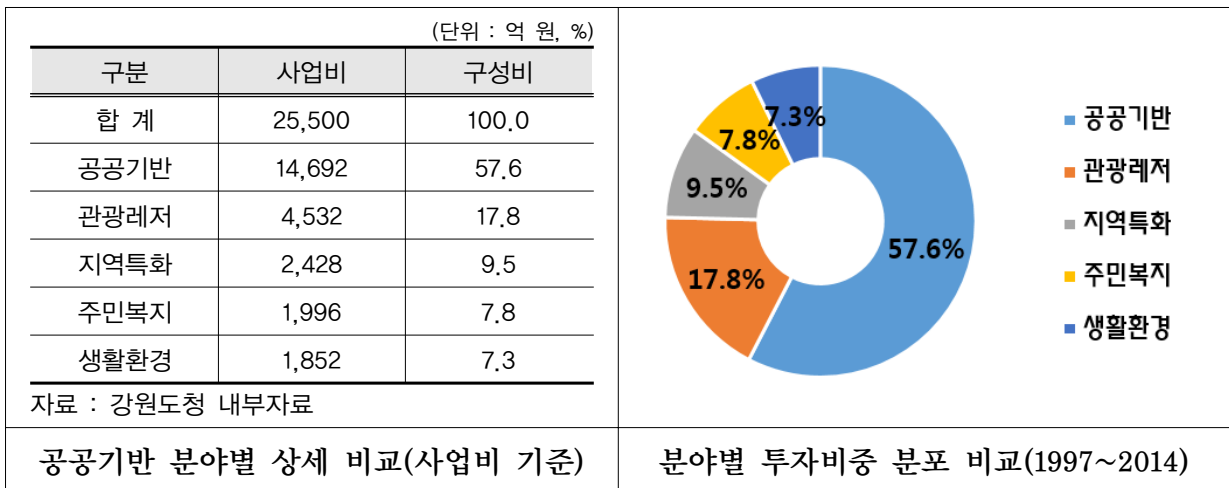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탄광지역의 인구 변화〉

- 지역적으로도 폐특법 제정 이후 지역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공공기반 중심의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대체산업 발굴 등 미래를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음
 - 공공자금 약 2조 5,500억 원 정도가 투자되었지만 공공기반 및 생활환경에 70%, 지역특화 산업 육성 및 관광레저기반 조성에는 30% 정도의 재원만이 투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최종 목적이 아직까지 달성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폐광지역에 투자된 사업의 연도별 현황〉

- 폐광지역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지만 공공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조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대부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 서비스 중심의 정책으로 폐광지역에 한정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투자의 일환으로 판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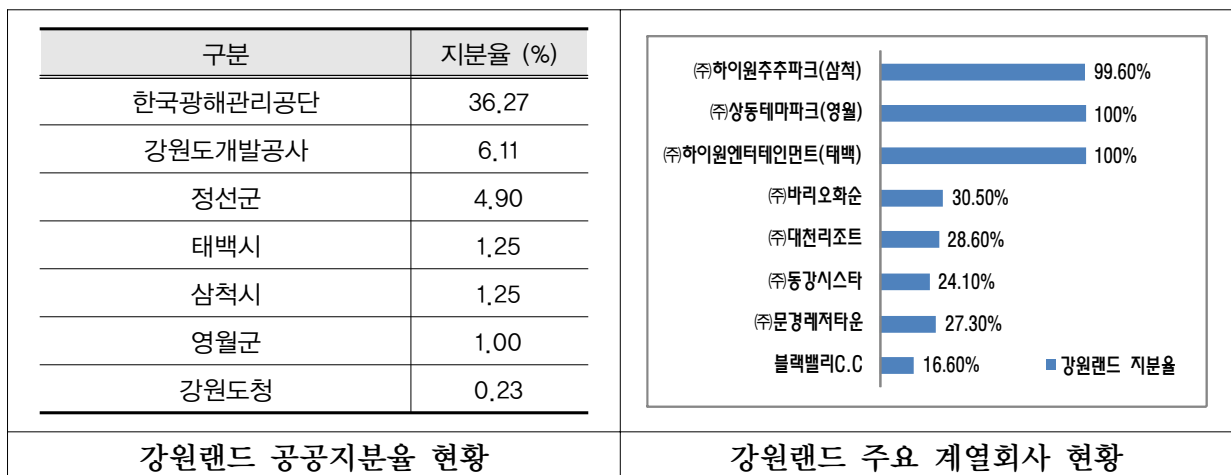
공공기반 분야별 상세 비교(사업비 기준)

분야별 투자비중 분포 비교(1997~2014)

〈폐특법 이후 분야별 재정 투자 현황〉

■ 1998년 강원랜드 설립 이후 주요 현황

-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 설립 되었음. 강원랜드 핵심사업인 스몰카지노가 2000년 개장했고, 2003년 호텔&카지노가 개장하였음
- 이외에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투자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대부분 관광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일부 시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강원랜드 주요 현황〉

- 강원랜드는 2007년 매출 1조 원 달성 이후 2015년 기준으로 방문객이 3백만 명을 넘어섰고, 1일 카지노 입장객 수는 8천 명 이상임. 이를 통해 '15년 매출액은 1조 6,337억 원에 이르렀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매출액에서 카지노 비중이 95% 수준이고, 호텔&콘도, 골프&스키 등 리조트 비중이 매우 약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향후 강원랜드가 목표로 하는 “친환경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해서는 리조트 분야 콘텐츠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국정감사 등 요구내용 참고)

	(단위 : 백만 원)				
	연도	카지노	비 카지노	카지노 비중	계
	2000	88,438	2,515	97.23%	90,953
	2001	453,897	8,123	98.24%	462,020
	2002	469,389	6,672	98.60%	476,061
	2003	664,394	12,738	98.12%	677,132
	2004	750,224	13,889	98.18%	764,113
	2005	830,316	16,646	98.03%	846,962
	2006	848,112	21,384	97.54%	869,496
	2007	1,026,931	39,576	96.29%	1,066,507
	2008	1,097,773	51,510	95.52%	1,149,283
	2009	1,151,618	55,040	95.44%	1,206,658
	2010	1,255,007	58,676	95.53%	1,313,683
	2011	1,191,822	71,829	94.32%	1,263,651
	2012	1,213,057	79,839	93.82%	1,292,886
	2013	1,277,298	79,608	94.13%	1,356,906
	2014	1,418,673	73,618	95.07%	1,492,291
	2015	1,556,115	74,862	95.25%	1,633,717

	강원랜드 매출액 현황
--	--------------------

〈강원랜드 주요 현황〉

- ⇒ 가족 중심형 사계절 복합리조트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 카지노 중심의 매출구조로 볼 때 단기간에 달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기존 리조트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 ⇒ 즉 기존의 관광 리조트 산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첨단 과학산업, 휴양힐링, 천상의 화원 조성, 주민 참여형 첨단 농업 육성 등 지역여건에 맞는 신규사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 특히 2025년 폐특법 종료시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체산업 육성은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자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임. 2025년 이후 지역과 강원랜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중앙정부 등의 지원체계 마련 등 역할 재정립을 위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II.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

- 폐광지역과 강원랜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운영사례는 새로운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국토교통부 공기업으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설립되었고, JDC의 핵심사업인 제주도 JDC 내국인 면세점은 2002년 개장하였음. 이들 수익금을 기반으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강원랜드와 JDC의 설립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있지만” 현재 운영방식과 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
- 다음에서는 이들 두 기관의 주요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강원랜드의 성장과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단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방안은 아닐 수 있을 것임
- 그렇지만 JDC의 좋은 점은 반영하고 미흡한 점은 수정함으로써 폐광지역이 강원랜드를 기반으로 2025년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할 것임

■ JDC 주요 현황과 성과

- JDC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음.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발 전담기구로 2001년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02년 설립되었음
-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무총리실에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을 두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법 17조처럼 JDC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업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법제의 운영·협의, 정책과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지원·점검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점검에 관한 사항 	<p>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자치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 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

〈JDC 운영 지원 체계〉

- JDC의 특징은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2002년 설립된 “JDC 내국인 면세점”을 통한 수익금으로 마련하고 있음.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여 약 5,0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 원)			
연도	매출액	매출 총이익	당기순이익
2012	343,625	163,826	90,421
2013	345,998	164,851	72,131
2014	367,666	176,078	81,394
2015	489,483	238,206	109,669
2016 상반기	264,787	135,883	61,079

JDC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 변화

- 목적 : 내국인 면세점은 제주관광 활성화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마련
- 운영 현황 : 제주도 출도 내외국인 이용을 위해 3개소 운영(운영인력 1,028명/JDC 직원 97명)
- 2015년 구매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 이후 매출 33.2% 증가

〈JDC 면세점 운영 현황〉

- JDC 설립 이후 '15년 12월까지 2조 6,829억 원(국 2,402억, 도 116억, JDC 8,098억, 민자 16,213억)이 투자되었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9.9억 달러 달성
 - 이를 통해 3조 40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454억 원, 취업유발효과 25,028명)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
 - 사업추진을 통해 제주도의 GRDP 및 인구 증가, 관광객 유입 등에 기여
 - ※ GRDP : '10년 10조 8,990억 원 → '15년 14조 7,550억 원(추정)으로 35.4% 증가
 - ※ 인구 : '10년 55만 명 → '16년 65만 명으로 18.2% 증가
 - ※ 관광객 : '10년 758만 명 → '15년 1,366만 명으로 80.2% 증가(외국인 관광객은 '15년 2,624천명으로 3배 이상 증가)
 - 일자리의 경우 첨단과학기술단지에 1,964명, 내국인 면세점에 1,081명 등을 고용하였음. 또한 향후 2.1만 명('15년 4,203명 일자리 창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투자기업과 연계하여 청년인재 양성도 추진 중에 있음
 - ※ 특히 제주도, JDC, 제주도내 대학, 투자기업 등이 공동 청년인재양성 사무국을 발족('14년)하고 투자기업별 특화 커리큘럼 운영, 초급관리자 양성 해외연수 등을 추진

- 대표적 성공사업으로는 영어교육도시 3개 국제학교(2,405명 재학) 설립으로 국가의 유학수지 절감효과와 제주도 인구유입에 큰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카카오 등 130개 기업을 유치하여 '15년 매출액이 1.2조 원에 달하고 있음

⇒ 강원도 강원랜드의 경우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라는 재원을 통해 지역개발이 이루어진 것처럼 JDC는 “국내 유일 내국인 면세점”이라는 매우 유사한 형태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JDC 지원 방식, JDC의 사업 추진 방법 등을 강원랜드에 적용한다면 낙후된 폐광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라 판단됨

⇒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우 유사한 이유로 강원랜드(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를 설립하였지만, 제주도의 경우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 따라서 JDC의 좋은 정책이 강원랜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치권, 정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됨

■ JDC 주요 사업과 미래 전략

- JDC는 2003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확정 고시”, 2004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승인”에 따라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조성,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2012년에는 제2차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1차 계획('02~'11)은 주요사업의 기반공사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2차 계획('12~'21)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이 핵심임

- 개발사업과 더불어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한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조성,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조성, 6차 산업 육성 등의 사회공헌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JDC는 제주도 내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14년 22억 원, '15년 60억 원 규모의 마을공동체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영어캠프 지원사업 등을 전개

- JDC의 최근 핵심 사업은 제주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현재 제주도에서 마련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JDC 실행계획 변경을 제주발전연구원과 수립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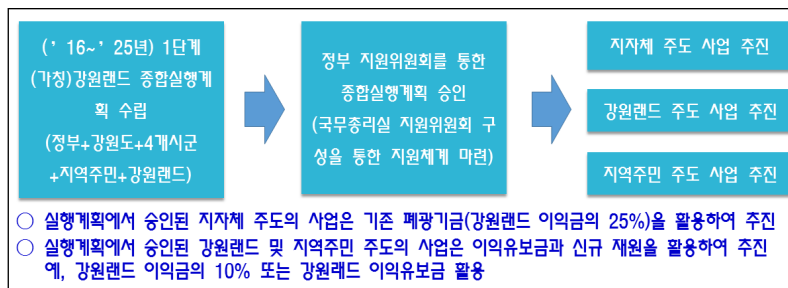
〈JDC 주요사업 추진 현황〉

- JDC를 통한 제주도의 개발사례에서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증가, 주거비 상승, 교통혼잡, 폐기물 발생 증가 등의 일부 문제도 유발되고 있지만, 이것은 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폐광지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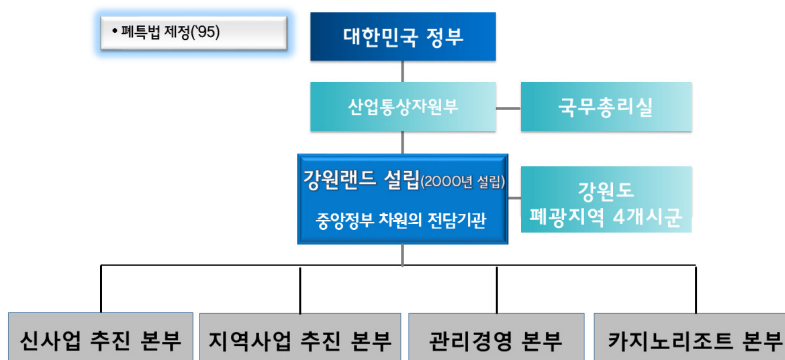
Ⅲ. JDC가 폐광지역과 강원랜드에 주는 시사점

- 강원랜드와 JDC의 설립 목적은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현재의 운영방식과 성과는 두 기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00년 경 설립된 JDC는 강원랜드 매출액의 1/3 수준이지만, 외국기업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통해 제주도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사업 영역도 관광 인프라, 첨단과학기술,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 및 주거단지 조성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반해 강원랜드는 카지노와 리조트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진행되었고, 카지노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사업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관광 이외에 투자한 태백 E-City 사업은 철수하였고, 현재 대체사업을 마련 중에 있음
-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지역적인 여건과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부분이 핵심일 수 있음
 - 1) 정부지원 체계상의 차이 : 강원랜드는 산업부 공기업이고, JDC는 국토부 공기업이지만, JDC는 국무총리실에 지원위원회와 지원조직이 있음
 ⇒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된 제주도, 새만금, 세종시는 총리실 산하에 지원조직이 있지만, 폐광지역만 지원조직이 없음
 - 2) 사업추진 방식상의 차이 : JDC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여 승인한 후 시행하지만, 강원랜드는 중앙정부와 발전전략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 → 승인 → 시행”의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폐광지역도 1단계(2005년까지) 사업시 일부 정부 승인이 있었지만, 2단계 이후(2005년)에는 협의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음
- 강원랜드는 현재 2조 9,648억 원의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2025년 이후 폐광지역과 강원랜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자산일 것임. 이들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을 뛰어넘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됨

- 남은 10년이라는 기간을 폐광지역이 재도약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폐광지역과 강원랜드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정부 중심으로 폐광지역과 함께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임
- 현재 강원랜드의 핵심 영역을 카지노, 리조트 운영에서 신산업 창출,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중심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실에 지원위원회 및 지원조직의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해 봄
 - 1) 1단계 : 지원방식의 변화 ⇒ 기존 폐광기금 지원 방식에서 지자체, 강원랜드, 지역주민 주도로 사업을 분리 또는 연계하여 역량 강화
 - 2) 2단계 : 추진절차의 변화 ⇒ 중앙정부, 강원도, 4개 시군, 강원랜드, 지역주민 등 다양한 관계자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지원 강화
 - 3) 3단계 : 기구 및 조직의 변화 ⇒ 국무총리실에 정부 지원위원회 및 지원조직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강화



<폐광지역의 새로운 정책수립 로드맵>



<강원랜드의 새로운 거버넌스(안)>

※ 이 정책메모는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추후 내용이 일부 보완·수정될 수 있습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및 제주도 벤치마킹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많은 자료와 충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고] JDC 주요 추진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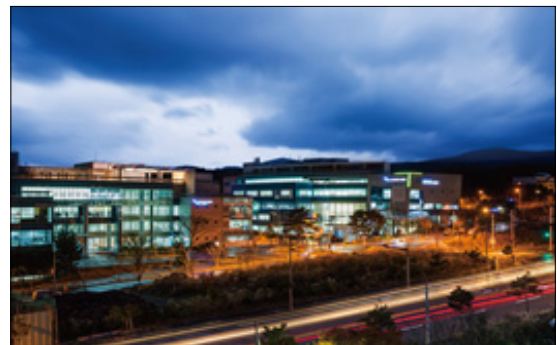
■ 제주영어교육도시

- 목적 : 해외유학수요 대체 등 국제교육 허브 조성(사업비 약 1조 7,810억 원)
- 주요 시설 : 국제학교,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시설
- 현황 : 국제학교 3개교<NLCS(英), BHA(加), KIS(공립)>에 현재 2,405명이 재학. '17년 미국 국제학교(SJA Jeju)개교 예정



■ 첨단과학기술단지

- 목적 : 정보통신기술 및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기반 산업 단지 조성으로 제주 경제의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사업비 약 5,800억 원)
- 주요 시설 : 카카오 등 130개 IT·BT 관련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등(분양률 92.2%)
- 현황 : 추가 입주수요에 대응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추진(사업비 1,385억 원)



■ 헬스케어타운

- 목적 :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휴양·연구 단지를 조성하여 글로벌 의료 환경 제공(사업비 약 9,050억 원)
- 주요 시설 : 전문병원, 웰니스몰, 메디컬스트리트 등(중국 녹지그룹 사업협약, 국내 1호 외국의료기관 사업 승인)



■ 신화역사공원

- 목적 : 제주와 세계의 신화 및 역사, 문화를 소재로 관광, 휴양, 위락 등이 어우러진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발(사업비 약 1조 1,0100억 원)
- 주요 시설 :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 워터파크, 컨벤션 시설 등
- 현황 : FDI 기준으로 총 7.7억 불 투자

■ 항공우주박물관

- 목적 : 항공 및 우주분야의 교육 체험 중심의 교육관광 인프라(사업비 약 1,150억 원)
- 주요 시설 : 공군 갤러리, 항공 기술관, 우주천문관 등



■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및 오션마리나시티(신규 사업)

- 휴양형 주거단지 : 청정환경을 활용한 세계적 고급휴양리조트단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휴양·관광산업 육성
 - ※ (규모) 서귀포시 예래동 741천㎡, (사업비) 2조 5천억 원 (기간) '03~'17년
- 오션마리나시티 : 글로벌 해양복합레저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 ※ (규모) 서귀포시 성산읍 1,421천㎡, (사업비) 약 4,679억 원, (기간) '15~'21년



■ 제주 도민 지원사업

<p>① 서귀포 관광미항 조성(193억원 투입)</p> <p>[서귀포시 서귀포항 일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대 핵심프로젝트 선정('06.12) ○ 1단계 사업 준공('0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연교 건립 및 서귀포시 기부채납 완료 → 연간 100만명 이상 방문하는 신흥 관광명소로 부각 	<p>② 곶자왈 도립공원 조성(57억원 투입)</p> <p>[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일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DC-제주도-곶자왈공유화재단 MOU체결 ('10.12) ○ 공원사업 1단계 준공('12.12) ○ 공원사업 2단계 준공('15.7.24) ○ 무상 기부채납 ('15.12)
<p>③ 국제자유도시 추진 인력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DC 아카데미(도민 국제화) 운영 ○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인재 양성(도내 대학-JDC 투자자 연계) → 싱가포르 산업연수 60명 1차 파견 - 초·중 사랑나눔 영어캠프, 대학생 해외 인턴십 - 주니어 저널리스트 양성 사업, 장학사업 	<p>④ 지역정책 및 사회공헌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산업 육성 지원(농기계, 농어촌기금 출연 등) ○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 -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 봉사단 사회공헌